

C. 중국선교의 새로운 모색, 영토개념에서 공간개념으로

1. 영토개념의 중국선교

중국선교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중국이라는 지리적 영토개념을 기본적인 배경으로 하여 진행됐다. 일반적으로 중국선교는 중국이라는 지리적 개념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었다. 이 점은 대표적인 중국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Taylor, J. Hudson) 예를 보아도 확인된다. 그가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

288) 王怡, 『십자가를 잃어지고(중국가정교회 역사 1807-2018)』, 158.

289) Bosch, 『변화하는 선교: 선교신학의 패러다임 전환』, 29, 31.

290) 최인호, “선교사 입국 거절 상황과 대응-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110.

설과 중국선교 동원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책 *China's Spiritual Need and Claims*를 보면, 중국선교에 대한 호소와 동원은 곧 중국이라는 나라로의 도전이었다. 중국이라는 지리적 영토 안에 살아가는 중국인들, 그 많은 숫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복음 전파자들을 숫자상으로 드러내는 통계지리학적²⁹¹⁾ 호소는 당시 수많은 젊은이에게 강하게 어필했다. 중국선교는 곧 중국에서 진행되는 선교를 의미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영토 외의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는 중국에서 펼쳐지는 중국선교와는 다른 선교 혹은 부속적인 선교로 여겨졌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주로 중국선교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지리적인 상이성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지리적인 영토가 오랜 기간 선교대상인 중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며,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대표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중국선교는 당연히 중국이라는 영토를 그 기본 조건으로 전제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지리적 영토 중심의 중국선교에 대한 이해는 중국이라는 지리적 공간에 대한 인식이 일반적인 공간인식의 오래된 틀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면 오래된 일반적인 공간인식의 틀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공간은 인간의 행위나 사회적 구조가 펼쳐지는 물리적인 배경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공간은 늘 독립성과 전체성을 지닌 잘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실체로 여겨졌다.²⁹²⁾ 연구자는 이런 일반적인 공간인식이 중국선교를 구성하는 중국선교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도 동일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중국선교에서 중국이라는 지리적 영토는 중국선교의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이면서, 선교의 행위와 관련 문화를 담아내는 움직이지 않는 틀이었다. 즉, 여기서 중국이라는 영토공간은 오랜 기간 중국선교가 일어나는 물리적인 배경으로만 다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공간에 대한 이러한 고정적이면서도 오래된 인식은 1980

291) James Hudson Taylor, *China's Spiritual Need and Claims*, <https://amz.run/5Awk>, 1887, 147/1747.

292) 정은주, “이주 공간 연구와 이주민 행위 주체성(agency) 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비교문화연구』, 제23집 제2호, 2017, 146.

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급격하게 진행된 세계화와 도시의 재편 등이 기존의 장소와 공간에 대한 인식을 재고했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이동성의 변동이 가져온 생활공간의 변화에 주목했고, 이러한 사회현상 분석에 공간 메타포가 다양하게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새로운 공간담론이 형성되었다.²⁹³⁾ 이처럼 이주의 시대가 초래한 사회적 변화는 고정되어 있던 공간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 또한 이러한 공간담론은 새로운 디아스포라 공간에서 디아스포라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했다.

1990년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세계화에 따른 세 가지 현상, 즉 경제적 지구화, 전 지구적 이주,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 혹은 운송기술의 발전 등은 기존의 국가체제를 위협하며 탈영토화와 탈공간화를 가속하는데, 이를 통해서 새로운 공간화를 구축했다. 즉, 초국가적인 사회적 공간이 생겨났다. 또한 이주는 고국과 거주국에 존재하던 기존의 사회적 결합 맥락의 질적 변화를 유도하고, 이 결합 맥락 안에서 제3의 새로운 사회공간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공간은 포용성을 가진 초국가적 공간이면서 지속적인 이주와 커뮤니케이션을 특징으로 하는 공간이다.²⁹⁴⁾

본래 기독교 선교의 기원은 어느 정도 지리적 영토의 개념과 관련이 있었다. 1910년 세계선교대회에서 선교는 선교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나라에서 선교가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로 나가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런 영토적인 의미로서의 기독교, 지리적으로 근접했던 기독교 왕국의 개념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 과거 선교운동의 기초였던 오고(come), 감(go) 같은 영토적인 개념으로는 이제 선교를 정의하기 힘들게 되었다.²⁹⁵⁾

선교는 전통적으로 영토성과 이동성을 전제로 한다. 선교는 고전적으

293) 위의 글, 147.

294) Schroer, 『공간, 장소, 경계-공간의 사회학 이론 정립을 위하여』, 218-239.

295) Walls, 『세계기독교와 선교운동』, 489-490.

로는 어떤 지리적인 영토를 향해서 떠나는 것을 의미했다. 보쉬도 선교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선교는 선교사를 지정한 장소로 파송하는 것, 그리고 선교사가 활동하는 지리적인 지역이라고 이야기했다.²⁹⁶⁾ 지리적 영토는 선교가 갖는 다양한 요소 가운데 일종의 전제조건이다. 선교훈련, 선교전략, 선교후원, 선교행정 등 선교의 다른 요소들도 선교의 중심에 자리 잡은 영토개념과 일정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교통과 통신의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고정불변의 요소들이 이제는 불변의 요소로 남아 있지 못하게 되었다. 탈영토화를 이어 재영토화가 나타나면서 글로벌 시티, 초국가적인 가상의 공간들이 나타났다.

기존의 영토 중심의 선교개념으로는 새로운 공간의 출현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없다. 또한 영토에서 영토로의 이동을 전제로 만들어진 선교사 모집, 훈련, 파송, 훈련, 돌봄의 전반적인 선교시스템으로는 새로운 공간에서의 선교활동을 활성화하고 최적화시키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고정적인 지리적 영토 중심으로 오랜 세월 구축되어 온 선교시스템을 이동하는 시대에 적합한 공간 중심의 선교시스템으로 재구축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주의 시대를 맞이한 중국선교에도 지리적 영토는 이제는 고정불변의 요소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여전히 중국이라는 영토공간에 가장 많은 중국인이 있으며 중국문화와 언어가 융성한 중요한 중국선교 현장임을 소홀히 할 수 없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가 본격화되고 세계화가 진행된 지금의 시대에는 좀 더 다양한 중국선교 공간들이 세계 곳곳에 존재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맞는 중국 선교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공간 중심의 중국선교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또한 지금 중국이라는 지리적 영토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중국선교 위기는 이러한 공간 중심의 중국선교 개념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한다. 영토개념의 중국선교가 여전히 유효한 측면이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이주와 위기로 변화된 세상에서 중국선교를 지속해서 유지하기 어렵다.

296) Bosch, 『변화하는 선교: 선교신학의 패러다임 전환』, 26.

2. 공간개념의 중국선교

디아스포라 공간을 형성하는 이주는 근본적으로 지리적인 현상이며, 어디에선가 시작해 또 다른 어디론가 이동하는 개념을 내재적으로 동반한다.²⁹⁷⁾ 초국가적인 이주는 초국가적인 디아스포라의 공간을 탄생시킨다. 이러한 공간은 고국과 거주국에 걸쳐있는 상호 네트워크를 통해서 생성되는 제3의 공간이다. 또한 이 공간은 고국과 거주국의 혼재하는 혼종성의 공간이기도 하다.²⁹⁸⁾

디아스포라 중국인 가운데도 이러한 공간이 대규모로 나타났다. 4장의 B에서 좀 더 자세히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공간을 살펴보겠지만, 이런 공간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지역, 후에는 북미와 유럽지역, 최근에는 동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도 나타났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역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공간을 채우는 디아스포라 중국인은 숫자는 이미 웬만한 나라의 인구 규모를 넘어설 만큼 엄청나다. 따라서 지금은 허드슨 테일러가 잘 사용했던 지리적 영토 중심의 통계지리학이 아니라,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공간통계학으로 중국선교의 공간을 분석하고 그 필요를 호소할 때이다.

이러한 이주, 그리고 이주를 촉진했던 세계화는 새롭게 생겨난 공간에 관한 인식을 촉진했다. 그리고 중국선교에 위기가 찾아오면서, 이 위기는 중국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지리적 영토공간의 선교적인 한계성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주는 오랜 세월 동안 지속하여 온 인류의 행위이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이주의 양상과 규모가 급격하게 변화되었다. 세계화 시대가 시작되면

297) 정은주, “이주 공간 연구와 이주민 행위 주체성(agency) 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145.

298) Schroer, 『공간, 장소, 경계-공간의 사회학 이론 정립을 위하여』, 234-236.

서 이주는 세계화와 함께 서로를 견인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했다. 세계화는 21세기 이주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는데, 이주를 유발하고 이주의 방향과 형태를 변화시켰다.²⁹⁹⁾ 하스에 의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 이주의 특징은 세계화, 가속화, 차별화, 여성화, 정치화 그리고 이주 변천의 확산 등으로 나타났다.³⁰⁰⁾ 이런 이주의 특징들은 디아스포라 송출국과 거주국 모든 지역과 사회에 기존 질서를 흔드는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의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주를 둘러싼 노선과 정책의 대립, 충돌양상이 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³⁰¹⁾

이러한 세계화와 함께 진행되어 온 이주의 강력한 영향은 선교지형에도 영향을 미쳤다. 선교지가 고정된 지역적 공간을 넘어서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의 선교의 시대가 열리게 했다. 이제 세계적인 선교단체들도 이런 선교 지형의 변화에 발맞추어 내 집 앞에 와 있는 디아스포라를 향한 디아스포라 선교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미국 남침례교 교회(SBC)의 남침례교 해외 선교부(IMB)가 그 대표적인 예다. 이들은 북미로 이주해오는 디아스포라들을 대상으로 선교하기 위하여 북미 교회를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³⁰²⁾ 이런 디아스포라 선교는 새로운 디아스포라 공간을 향한 실제적인 선교 실천이다.

이처럼 이주의 시대는 선교지형의 변화, 선교전략의 전환 등을 가져왔다. 디아스포라의 대규모 출현과 이에 대한 디아스포라 선교신학 등의 출현은 오랜 기간 고정되어 있던 선교환경에 이동성을 부여했고 변화된 환경 가운데 선교를 새롭게 접근하게 하고 있다.

특히 중국선교는 위기의 시대 가운데, 중국이라는 고정된 지리적 영토를 넘어서 새로운 선교공간으로의 전환과 발전을 더욱 필요로 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규모, 점증하는 중국 내의 기독교에 대한

299) Hass, *The Age of Migration*, 3-5.

300) 위의 글, 9-10.

301) 위의 글, 1-3.

302) John D. Massey, Mike Morris, W. Madison Grace II,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A History of Southern Baptist International Missions*, <https://amz.run/568r>, 2021,16.

핍박은 지리적 영토개념의 중국선교에서 공간적 개념의 중국선교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지리적 영토개념을 넘어서 공간적 개념으로 중국선교에 접근할 때, 중국선교는 현재의 위기에 갇히지 않으면서 새롭게 장기적인 중국선교의 길을 개척할 수 있다. 또한 이주라는 시대적 흐름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이동하는 시대에 움직이는 선교환경에 맞게 새롭게 중국선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중국선교의 공간적 개념은 기존의 고정된 지리적 영토 중심의 중국선교 동원, 훈련, 파송, 사역 등의 선교환경을 이동하는 시대에 맞는 선교환경으로 재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지리학에서 공간에 관한 관심은 사회관계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면서 시작되었다. 그전까지 공간은 그저 객관적인 물질의 표면으로 지리학의 연장선상에 서 있었다. 그러나 사회현상, 사회관계 등이 복잡해지면서 공간에 대한 이해의 시도가 주목받기 시작했다.³⁰³⁾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복잡한 상황에 대한 좀 더 나은 이해와 적절한 대책을 촉진한다. 중국선교의 공간에 관한 관심은 동일한 이유로 시작된다. 현재 중국선교의 위기는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 내부의 정치, 미중관계라는 국제정치, 한국의 반중정서, COVID-19, 중국사회의 급속한 정치집단화, 신앙에 대한 통제와 핍박, 교회의 대형화와 세속화 등 중국기독교가 맞닥뜨린 문제는 복잡하고 많다. 공간개념의 중국선교는 이런 복잡해진 선교환경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면서, 새로운 선교공간의 탐색이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서 다양한 중국선교의 기회를 만나게 된다.

D. 요약과 결론

본 장에서는 이주의 시대가 가져온 디아스포라 선교공간의 탄생이 중

303) Gill Valentien, *Social Geographies: Space And Society*, 박경환 역, 『공간에 비친 사회, 사회를 읽는 공간』, 경기: 한울, 2014, 15.

국선교의 위기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주의 시대는 선교환경을 변화를 일으켰다. 그중 하나는 새로운 디아스포라 선교공간의 탄생이다. 그리고 이 공간이 위기에 처한 중국선교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찰했다.

디아스포라의 새로운 선교공간이 중국선교에 있어서 의미가 있으려면 먼저 중국선교란 무엇인지 정의하고, 지금 중국선교가 처한 위기는 무엇인지 파악한 뒤,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분석해야 했다. 연구자는 중국선교의 역사를 시기, 중심, 특징에 따라서 다음의 여섯 가지 시대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① 경교의 중국선교 ② 로마가톨릭의 중국선교 ③ 개화기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까지의 중국선교 ④ 가정교회의 중국선교 ⑤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선교 ⑥ 시진핑 체제하의 중국선교다.

중국선교의 역사 속에서 중국선교가 어떤 위기를 겪었는지, 그 위기의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다. 중국선교의 위기는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매번 그 위기의 양상과 결과는 달랐다. 본 장에서는 선교역사의 흐름에 따라 중국선교의 위기를 다섯 차례의 위기로 분류하여 기술한다. 그리고 매 위기를 시기, 내용, 특징으로 분류한다. 이를 통해서 각각의 중국선교의 위기 가운데 나타난 위기의 요소들, 이들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위기의 결과를 도출했다.

중국선교의 위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중국선교의 역사를 인식해야 하고, 그 기초 위에 중국선교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연구자는 이 세 가지 중국선교 구성요소를 ① 중국이라는 지역 공간 ② 중국인이라는 대상 ③ 중국어와 문화라는 배경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전통적인 중국선교의 개념을 이 세 가지 구성요소가 겹치는 공통분모 A영역으로 규정했다. 즉 전통적인 중국선교 개념은 중국이라는 지역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인 대상의 중국어와 문화를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선교다. 이에 반해서, 이주의 시대로 말미암는 선교환경의 변화를 받아들인 새로운 중국선교의 개념은 이 세 가지 구성요소가 존재하는 모든 영역을 의미한다. 즉 중국선교의 개념은 중국이라는 지역 공간에서 중국인이라는 대상으로 그리고 중국어와 문화라는 배경으로

까지 확장하는 개념이다.

본 장에서는 이런 새로운 중국선교의 개념 위에서 중국선교의 위기 분석을 시도했다. 중국선교의 위기의 요소는 1 중국선교사 위기 2 중국기독교 위기 3 중국선교 위기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요소들이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만들어낸 네 가지 역사적 사례를 가지고 위기의 상관성과 결과를 분석한다.

이상의 분석과 고찰을 통해서 2012년 시진핑 체제 이후 시작된 다섯 번째 중국선교의 위기는 세 가지 위기요소(중국선교사의 위기, 중국기독교의 위기, 중국선교의 위기)가 동시에 진행 중이며, 아직 그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에 있었던 네 번째 위기와 극복의 사례를 참고하여, 본 장에서는 중국선교의 개념을 중국이라는 영토 공간에서 중국인이라는 대상으로 확장하여 새로운 디아스포라 중국인 공간에서의 중국선교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서 중국선교사의 위기가 중국선교의 위기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며, 중국선교사의 위기도 새로운 선교공간을 모색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선교를 지리적 영토개념의 중국선교에서 공간개념의 중국선교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영토개념의 중국선교와 공간개념의 중국선교를 분리하여 설명했다. 그리고 이런 중국선교의 발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과 상황들을 살폈다. 이를 통해서 중국선교에 대한 공간적 접근이 위기의 시대에 적합한 중국선교 방향임을 논증했다.